

# “친노 패권주의 청산 빠져” “혁신 방해하겠다는 거냐”

## 새정치 중앙위 오늘 혁신안 처리...주류·비주류 전운 고조

혁신안 의결을 위한 20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간의 정면충돌 조짐이 감지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 등 주류에서는 혁신안의 실행에 힘을 실으며 당을 안정시키려는 반면 비주류에서는 혁신안 실행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는 이날 ▲사무총장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당비 대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 의결에 나선다.

당내에서는 혁신안 내용에 커다란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중앙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감 쟁점인 최고위원제 폐지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혁신안은 9월 중앙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위 개최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전반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의원총회는 혁신안 전반에 대해 논

### 최고위원제 폐지 등

### 민감 쟁점은 9월로 미뤄

### 당 밖 신당 움직임 가속

의하지는 비주류의 요구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1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측의 반대로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 비주류 의원들은 혁신안 활동이 4·29 재보선 패배 평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혁신안이 당내 최대 문제인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주류 진영에서는 “혁신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주류의 집중 문제 가능성에 대해 “혁신을 방해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의총과 중앙위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경우 신당을 향한 내부의 원심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추후 혁신안 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체성 논의를 비롯해 최고위원제 폐지, ‘현역 물갈이’를 위한 교체지수 도입이나 선출직 평가위원회 설치 등 공천에 직결되는 민감한 안건들이 줄줄이 대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신당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염동연 전 의원이 19일 “현역 야당 의원 5~6명이 우리가 추진하는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의원이며 일부 호남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또 포대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지난 17일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등 20여명 현역 국회의원이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밝히,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호남에서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 기자회견 이후,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신당 참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기초단체장협의회 전체총회



19일 오후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전체총회’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년들이 꾸린 문화난장·청춘축제 대성공

### UP대회 성공 업그레이드 광주

### (3) 세계속 ‘젊음의 도시’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 UP대회)의 성공 개최는 광주가 ‘젊음의 도시’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2015세계청년축제’를 비롯해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꾸리고 있는 대인예술아시아장은 연일 국내·외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역에서는 “광주UP대회와 청년들이 꾸린 문화행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광주가 청년들을 위한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장은 청년들, 7월 광주로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시 동구 금남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5세계청년축제’는 광주 청년들의 자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9일간 펼쳐진 축제에는 외국인 선수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5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축제는 광주 지역 청년기획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에서 실행까지

### 외국 선수단 등 수만명 찾아 광주청년 저력 세계에 펼쳐

### 일자리 등 정책 연계 필요

모든 단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주목 받았다. 세계청년축제준비단으로 참여한 100여명의 지역 청년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감’을 선물했다.

도심에서 1박2일을 보내는 도심 캠프는 전국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대통령직속기관 청년위원회와 지역 청년들의 만남은 함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2015 광주물총축제’, 청년난장페스티벌(4~13일)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컸다.

지난 9~13일 열린 대인예술아시아장 ‘별장’에도 외국인 선수 1000여명을 비롯해 모두 3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방문객들은 ‘The Present’ 등 청년 뮤지션들과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문화 도시 광주의 속살을 엿봤다.

대인예술아시아장을 찾은 스웨덴 태권도 대표팀의 도니아 케이디(여·22세)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행사를 꾸미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스웨덴과는 다른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10여명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청년축제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와 없고 플라마켓, 공연, 청년푸드마켓 등 이벤트형 행사들을 나열하는 식의 진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축제의 비전,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즐기는 수준의 행사로 끝났다는 지적도 있다. 축제를 불과 2개월 앞둔 지난 5월에서야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등 기간이 촉박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강수훈 청년축제 준비단장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청년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광주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축제에 참여했던 지역 청년문화기획자들의 활동에 대한 고민은 광주시의 숙제로 남아 있다. 도심 속 대규모 행사가 아니더라도 마을 곳곳에서 청년들이 모여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시청 신동하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를 활성화해 그들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해 실행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전남 메르스 종식 자택격리자 2명 격리 해제

광주·전남지역 내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됐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의 격리조치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9일 “지역 내 마지막 메르스 자택격리자 2명(의사·간호사)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2회 ‘음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메르스대책본부는 지난 5월 27일 첫 메르스 격리대상자 발생 후 63일

동안 의심환자 29명(격리대상 14명, 자택격리 15명)과 격리대상자 174명(자택격리 93명, 일상격리 81명)을 관리해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6일을 기해 여수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을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선 메르스 관리대상자가 ‘제로’인 상태로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됐다는 게 시·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만 정부에서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방역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최근 홍콩에서 유행하는 홍콩독감과 에볼라 등 해외신종 감염병 감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과 사망자가 신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 광주 온 수도권 승객 16만명 늘어 150억 더 썼다

### 호남선 KTX 개통 100일...항공 승객 26%, 고속버스 17% 줄어

지난 4월 2일 개통된 호남선 KTX(1단계)가 호남권과 수도권 유통혁명을 이루면서 지역경제에도 효자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이후 호남선 이용객이 100일간 광주에서 하루 평균 1억5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KTX 호남선 이용자 1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출발, 광주 승정역 도착 이용객의 KTX 운임을 제외한 도착지에서 평균 지출액은 9만1천760원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개통 100일동안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

동한 KTX 승객은 전년 동기대비 16만명(67%)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항공과 고속버스 이용객은 각각 전년대비 26%(1만8000여명)와 17%(1만8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이용객의 평균 지출액과 KTX를 이용한 승객 순 증가분을 감안하면 KTX 호남선 개통 이후 100일간 전년 대비 약 147억원(1일 평균 1억5000만원)의 추가 지출이 광주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KTX 호남선 개통 이후 100일간 광주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광주 지역

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 업종에서 약 30억원의 매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메르스의 여파로 전년 대비 광주 방문객이 줄어든 6월에도 4.5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면 KTX 호남선 개통 100일간 주요 업종별 매출 증가 총액은 183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0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광역사업본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충행기자 golee@연합뉴스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 비절개 눈매교정수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 새생명탄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